상월결사 3차 평화방생순례, 세계평화 외치다

5월 25일 장성 백양사서 세 번째 평화방생순례 봉행

불교 각계 인사 1300여명 참석
정광고 학생 등 청년불자 운집
백양사서 평화발원 축원법회도
왕복 10km 행선하며 마음모아

장성 백양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사진 왼쪽)과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필두로 순례단이 백양사 산문을 들어오고 있다.

세계 평화 기원과 함께 행선을 통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생명평화순례가 봉행됐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5월 25일 장성 백양사에서 평화방생순례를 개최했다.

이날 순례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부실장 스님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등 교구본사 주지 스님, 종회 부의장 각림, 만당 스님 등 종회의원 스님들과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 서울 조계사, 봉은사 신도들을 비롯해 도선사, 수국사, 호압사, 연운사, 불갑사, 관촉사, 원적정사, 안국선원, 총림사, 염불사 등에서 신도 1300여 명이 참여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총장,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을 비롯해 수미산원정대 대원 등 재가불자들과 박창환 前 남도정무부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와 이개호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도 참석했다.

순례에 앞서서는 올해 진행되고 있는 평화순례에 대한 의미와 특별히 평화방생으로 이름붙여진 행사 취지가 설명됐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회주 자승 스님 인사말 대독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던 불교의 현실을 극복하고 실천하는 불교,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수행의 장을 만들기 위해 3년째 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순례 과정에서 분주하고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는 마음의 방생을 하는 수행을 찾아가길 바란다"며 "올해 상월결사 실천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세상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마음의 자유, 곧 마음의 방생이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생이며 세상의 평화로 나아가는 바탕이자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입재식을 마친 대중들은 장성 약수중학교부터 백양사까지 5km 구간을 행선하여 백양사에 당도했다. 백양사에서는 종회 부의장 만당 스님의 백양사 역사 설명과 함께 상월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 집전 하에 생명방생 축원이 진행됐다.

이날 백양사 평화방생순례에서는 다른 순례와 달리 10~20대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다. 특히 정광고교생 80여 명이 순례에 동참해 백양사에서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와이즈캠퍼스 입학설명을 듣기도 했다.

송한솔 정광고 파라미타 회장(3학년)은 "스님들과 걸으며 우크라이나 평화를 비롯한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되어 보람찼다. 혼자 걷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걸어 더욱 기뻤다"고 말했다.

이지범 정광고 총학생회장(3학년)은 "코로나가 잠잠해지며 이렇게 함께 정진할 수 있게 됐다. 방생이라고 하면 보통 생명방생만을 떠올리지만, 마음의 평화도 또 다른 방생이라는 말에 느끼는 바가 컸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평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후 순례는 백양사에서 다시 약수중학교까지 이어졌으며 회향과 함께 순례 대중들은 또 다른 순례를 기약했다. 회향식에서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참석 신도대표들에게 지역특산품을 선물했으며,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정광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상월결사는 7월 6일 보은 법주사에서 네 번째 평화방생순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불교 도약 위해 사부대중 머리 맞대다

금산사, '전북불교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원탁회의' 개최

80여 사부대중 모여 현안 토론
도법 스님 "문수 지혜 모으자"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와 태고문도회는 5월 21일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에서 전북불교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전북지역 불교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주지 일원)와 태공문도회는 5월 21일 전주 혁신도시 금산사 전법도량 수현사에서 '전북불교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 백련사 주지 평상 스님, 서고사 주지 화평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등 80여 사부대중이 참여해 지역불교의 현황과 문제점,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사부대중이 모여 전북불교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전북불교의 과거와 현재를 살피고 전북불교를 공동체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논의해 전북지역에서 지역대중들의 구체적 고통을 살펴 극복의 방법을 의논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부대중 원탁회의' 의장 도법 스님은 '전북불교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불교의 존재이유가 '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의 정신이 곧 '자기완성과 사회완성을 통한 뭇생명의 안락'으로 실현하는 것임을 확인했다"며 "공부와 수행의 결과가 개별적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나 종단전체적인 측면 즉 공동체적 관점에서는 암담하고 막막하다"고 고백했다.

스님은 이어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암울한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결정적인 한걸음의 실천을 하지 못한 것에 있음을 지적하고 "현재의 암담함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그리고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 한다"며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사부대중원탁회의에 참여한 대중들이 희망의 주체다. 집단지성의 힘과 지혜를 발휘하는 것에서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사부대중 원탁회의에 동참한 대중들은 8개의 분과로 나뉘어 '내가 본 전북불교의 현재와 전북불교 발전을 위한 방안은?'이라는 주제와 '원탁회의 진행방식에 대한 의견'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모듬별 토론을 진행했다.

모듬 토론에서는 노령화와 탈종교화로 인한 신도수 감소, 사회참여에 대한 불교인들의 무관심, 불교 복지활동의 미흡, 신도회 비활성화, 지역주민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불교행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됐고 개별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적 관점과 시스템을 향한 노력 필요, 교구 및 사찰운영에 있어 합리적이며 민주적 공의 체계 추진, 불교관련 사업의 연속성 보장, 시대를 선도하는 불교의 필요성, 고령화, 탈종교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의 문제점을 사찰과 지역사회가 공유하고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평상 스님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전북불교의 현실을 공유함에 있어 전북불교 전체 대중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조계종 17교구, 24교구의 노력이 필요하다" 며 "출재가 간의 대화와 토론 그리고 전북사회 속에서 전북불교의 활동이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부대중 원탁회의는 지난해 태공당 월주 대종사 열반 100일을 맞아 문도회의에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도법 스님과 일원 스님이 간담회에서 전북불교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한 문도 화합과 교구 혁신, 원탁회의 발족을 밝힌 바 있다. 당초 3월 출범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연기됐으며,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셋째 토요일마다 열릴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달리는 수행자' 진오 스님, 대통령 표창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진오 스님<사진 왼쪽>은 법무부가 5월 20일 정부과천종합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진행한 '제15회 세계인의 날' 시상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세계인의 날(Together Day)은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한 재한외국인과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됐다. 진오 스님은 이주민의 안정적 초기 정착 도모, 외국인 가정을 위한 무료 진료소 운영 및 교육 등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01년부터 구미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을 펼쳐온 진오 스님은 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 외국인노동자 쉼터,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다문화 한부모가족 자립시설 등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박예진 학생, 파라미타 사경전 대상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지현)가 주최하는 25회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에서 박예진(광동고 3) 학생이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최우수상(동국대학교 총장상) 수상자로 문서현(수명중 1), 장서희(동대부여고 1)학생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사경연구회장상)은 김리건(은석초 4), 특별상은 조서연(청담중 1), 김민(은석초 6), 노을(동대부여고 1), 김지후(경포고 3), 최예섬(동대부여중 2)학생에게 돌아갔다.

이번 사경공모전은 전국에서 2만 1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했으며 그 중 36개 단체의 작품 중 460여 점이 자체 심사를 통해 추천됐다. 추천작들은 5월16일 연합회 자체심사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총 63점의 작품이 우수 공모작으로 선정됐다.

심사를 맡은 한국사경연구회 회장 행오 스님은 "올해 사경공모전이 중간고사 시기와 겹쳤음에도 많은 작품을 출품해준 학생들에게 무한한 격려를 보낸다"고 심사평을 했다. 노덕현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신축불사

아홉스님의 석 달 동안의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월선원 신축불사를 추진합니다. 봉은사의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 건립불사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함께 우리 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신축불사 모연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상월선원 전체 불사 모연



전체 불사 : 1인 100만원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5-099939
농 협 301-0299-2142-01
국민은행 401301-04-080435
예 금 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의/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02)3218-4811/4837

홈페이지 http://www.bongeuns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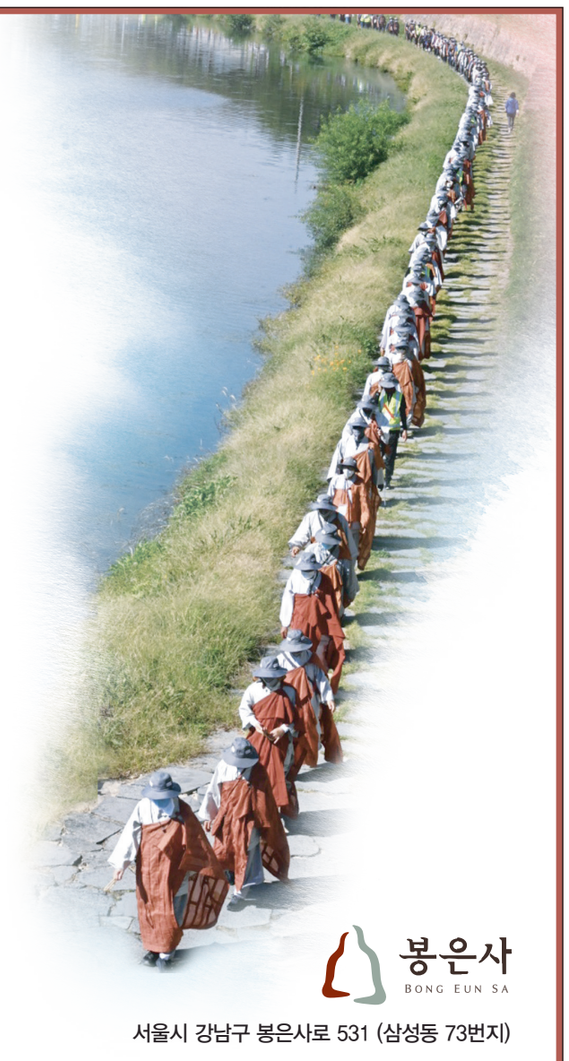
상월선원 대웅전 불사 모연





구 분	수 량	동참금
상량보	1개	2억원
대들보	18개	1억원(개당)
기둥	18개	5천만원(개당)
도리	77개	2천만원(개당)
주춧돌	18개	5백만원(개당)
서까래	236개	1백만원(개당)
기타		십시일반

구 분	내 용	가족모연(금판)		개인모연(은판)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불상	삼존불(석가모니불) 및 좌대	5명	3억원	200명	100만원	500명	10만원
	삼존불(약사여래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삼존불(아미타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관세음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지장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구 분	내 용	가족모연		개인모연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탱화	후불탱화 삼세불도	10명	1억원	200명	50만원	200명	10만원
	신중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감로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봉은사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삼성동 73번지)